

아쉬운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새날이 밝았다. 희망찬 한 해의 시작이다.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며 장탄식을 하던 지난해였다. 결과에는 필연의 과정들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의 탓이라기보다 모두가 감내할 공업(供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 가면 급훈이 걸려있다. 대부분 정직, 성실, 노력을 적고 있다. 그 가르침 속에서 배우고 익혀 세상살이를 하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그러한가. 나는 정직하지, 성실하지,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볼 문제다.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의 탈을 쓰고 살며, 서로 불신의 장벽만 높여 왔다. 차용증서를 주고받지만 상대를 불신해 약속을 어기기 일쑤 아니었는가?

인류의 성장을 이끈 지혜의 결정체는 도덕률이다. 성실도 별반 다를 바 없다. 겉기 전 기거나 겉음마 시기가 있었듯이 날기 위해서는 열심히 걷고 뛰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고 걷는 과정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날려고만 하지 않았던가?

그러다보니 우리는 붕괴를 경험하게 됐다. 붕괴는 누가 가져다 준 재앙이 아니라 스스로 불러들인 괴물이다. 노력 또한 그렇다. 요즘 사람들은 땀 흘리며 하지 않는다. 삶의 현장에서 땀방울을 씻으며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성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노력보다는 불로소득에 익숙해져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자주 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오염이다. 오염은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은 물론 인류의 생전 자체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을 행복의 요람에서 살게 하는 지혜도 잘못 쓰면 오



불자 세상보기

현각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흐르는 물은 웅덩이 피하지 않아

염이라는 재앙을 불러와 우리 자신을 상처내고 마침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해도 생각이 바르지 않고 그것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구에는 재앙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오염과 환경파괴는 외계인이 안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저지른 행위의 소산이다. 이는 이기심이 발동돼 야기된 문제이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마음 닦기를 중요히 여겼다.

마치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한 가지에 차분히 있지 못하고 이 가지 저 가지로 한 시도 쉽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될 일을 분간하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이기심이 발동하는 순간 변별력은 그 척도를 잃고 만다. 욕심은 시력을 떨어뜨리고 청력을 잃게 한다. 탐욕은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 탐욕은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괴물이다.

“모든 일은 마음이 만들어낸다(一切唯心造)”는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돌아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생각을 도구로 인생이란 캔버스에 그리는 자신만의 그림대로 살기 마련이다.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꽃을 생각하고 행복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수놓이지만 불안, 초조, 악몽에 시달린다면 그만그만한 일로 주저앉게 된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이다.

올 해는 지난 해 겪던 마음의 짐을 벗어 버려라. 고통스럽다는 것도 영혼을 닦기 위한 수행과정이거나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출가분해 된다. 지금 겪는 고통의 순간이 우리 삶을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숨이 고르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된다.

정진바라밀은 수행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터득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정진 없는 수행자에게는 공허만이 메아리칠 것이고 정진 없는 삶은 허탈만이 엄습하게 된다. 정진은 속속을 아우르는 묘약이다. 좌절을 이기는 묘약이며 안정된 내일을 기약하는 안내자인 것이다. 정진 없이 이룩된 일이 그 무엇이 있겠는가. 건반 위를 휘감는 피아니스트의 손놀림, 뮤지컬 배우의 무대에서 발발림, 성악가의 신 내린 음성도 정진 없이 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인생은 스키프(skip)를 허용하지 않는다. 점핑은 부실을 초래한다. 사고의 점핑은 오해와 불신을 낳기도 한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피해가지 않는다. 지루하고 힘들어도 웅덩이에 물을 채운 후 앞을 향해 달린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서 삶의 예시를 터득해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공경하는 삶을 발원하자

새해가 밝았다.

세계 경제는 아직 얼어붙어 있고 정부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그 수위를 높여 가는 마당에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고 새 희망에 가슴이 설레는 것이 새해 새아침의 풍속도다. 아쉽게도 지금은 희망을 얘기하기보다 더 큰 절망이 찾아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분위기가.

경제가 위축되면서 사람의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이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 오라”던 달마 스님의 외침을 생각해 보자.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던 해가 스님을 생각해 보자. 어디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어디에 오그라드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9년 면벽의 스승을 찾아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발을 마다 않고 밭을 구하던 해가 스님의 간절함이 필요하다. 스스로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황금덩어리가 눈앞에 있어도 그 귀함을 알지 못한다. 한 칼에 팻죽을 잘라 바치는 그 웅덩이 아니던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오그라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는 분명 불자의 생활 태도가 아니다. 불자라면 큰 발원과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에 경제의 위축은 오히려 마음공부하기에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주변의 모든 일이 공부의 재료다. 마음공부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작용하는 마음을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마음공부의 기본이다. 누가 욕을 하면 그 욕을 재료로 나를 가다듬고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으로 나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방편의 수행을 하더라도 마음을 벗어나 따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구도심이 없이는 어떤 수행도 이룰 수 없다.

새해를 맞아 이루지 못할 꿈 보다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소립굴’ 앞을 찾아가는 해가 스님의 간절함으로 매사에 진력해 보라. 꿈은 이루어 질 것이다.

본지는 새해를 시작하며 ‘부처님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기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 불자는 물론 온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이 ‘상불경 보살’이 되기를 서원하여 하얗는 공경의 자세로 살아가자는 취지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의 간절한 공경심이 이 경제한파를 극복하고 인간 세상의 갈등을 해소할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신념에서 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남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 보시공덕을 모르고 만생명의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체중생을 구제할 원력을 품을 수 있겠는가? 자기만 아는 사람은 자비와 지혜를 갖출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말에는 일체중생을 부처로 보는 지혜와 만물만생을 위해 공양하겠다는 자비가 담겨져 있다.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보살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한 것이다. 일체 중생이 한 몸이어서 남을 공경하는 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기축년 새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인간의 근본, 자성마저 혼미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불자라면, 좀 더 당당하고 보다 자신 있게 달려오는 모든 경계를 공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한 걸 같이 말하자. ‘부처님 당신을 공경합니다’라고.

“갓기 보다 베풀기에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라”

직장 다니기 싫다는 어떤 청년이 “하루하루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늙어 죽었으면 해요”하며 답답한 현실을 절망적으로 말하였다. 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그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를 마음 내주었을 뿐이다. 불법의 인연이라도 달아아할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집에 오니 또 다른 청년이 반가운 메일을 보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특히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힘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마음 편히 지내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며 그 30대의 법우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꾸러미를 보냈다. “매일 매일이 힘든 우리 직장인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에너지가 되는 선물이 있으면 합니다.”

월요일 월등히 나은 하루를 만드는 날. 자기 능력의 1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간. 직장인은 그 속에서도 3분의 1밖에 하지 않는다. 월요일에 걸리기 쉬운 날인만큼 자기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6 일주일의 선물합니다.

화요일

화목한 분위기로 살아가는 날. 꼭 즐겁고 신나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법. 웃는 것도 습관이다.

수요일

수양과 자기 개발로 자신을 갈고 닦는 날. 신제품이 판을 치는데서 낡은 제품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최근 무슨 책 읽으셨어요?”라고 누가 물으면 “바빠서”라고 대답하지 않았는가?

목요일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날. 도전할 때 승부는 50대 50이지만, 포기할 때는 무조건 100% 패배만 있을 뿐.

금요일

금빛 찬란한 미래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날. 허찰은 존재라고 느꼈던 자기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자신의 역사는 달라진다.

토요일

토론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 가는 날. 한 주일 동안 한 마디도 나누지 않은 동료는 있는가? 사소한 문제로 걸끄러운 사이가 된 사람과 차한 잔의 시간을 가져 보자.

일요일

일체의 근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날. 마음을 청소하고 무념무상으로 될 때 마음의 길이 운명의 길이 됨을 기억하자.

불평하던 청년과 이 선물을 보낸 청년의 직장이나 조건은 서로 비슷했다. 역시 마음가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감하게 된다. ‘일요일’의 선물 내용처럼 ‘마음의 길이 운명의 길이 된다.’ 무엇보다 선물을 보낸 청년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직장인들의 마음까지 배려하고 있었다. 아마 ‘나만 혼자 힘든 건 아니다. 힘 내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불자로서 ‘갓기보다는 베풀기에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라’는 신년의 한 법어가 떠오른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매일 어떤 마음의 선물을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양화사 건강원

근 자원봉사의 집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 「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드리기 “자원봉사의 집” 양화사입니다.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 부인성 질환)(아토피, 피부질환)(신경통, 관절질환)(디스크, 혈압질환)(불치, 난치성질환)(회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체질개선)(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 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 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수지침, 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 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한상기 / 분회장: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 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의 뜻을 받들어 “건강”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집!

양화사  
근 자원봉사의 집